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방재마을 조성에 관한 연구

신호준, 백민호, 곽동걸, 김춘삼, 심재선
강원대학교

Study on the Composition of the Village Disaster Prevention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H. J. Shin, M. H. Back, D. K. Kwak, C. S. Kim, J. S. Shi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방재마을 조성에 대하여 현재 조성 중에 있는 방재시범마을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일본의 방재마을 조성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지역 특성에 맞춘 방재마을의 조성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1. 서론

우리나라는 유사재해가 유사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지역을 단위로 하여 재해위험 지구를 설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이는 재해발생이력을 통하여 발생인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과는 그다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지역에 대한 위험을 자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방재마을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고, 현재 운영중인 방재시범마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일본의 방재마을 조성 및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지역별 특성에 맞춘 방재마을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2. 방재마을 만들기의 개념 및 현황

2.1 방재마을 만들기의 개념

방재도시계획이 구조적인 각종 시설물 설치를 중심으로 한 하드웨어적인 개념이라면, 주민참여는 비구조적 내용을 중심개념으로 한 재난대피훈련과 재난예방활동 등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한 개념이다. 일반적인 주민참여와는 달리 방재분야의 주민참여는 지역의 방재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도시

계획 분야의 주민참여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방재마을은 「읍·면·동 및 통·리」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주로 주민 주도적 마을운영과 재난발생시 주민의 자율방재의식에 기초한다. 또한, 방재에 방대책마련을 바탕으로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커뮤니티를 구성하며 방재마을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표 1 방재마을의 범위

Table 1 The scope of the village disaster prevention

구분	방재마을의 추진 주체
계획 주체	관+주민 주도(기업)
계획 범위	중·소규모 마을단위 (읍·면·동)
계획 성격	방재예방대책마련 / 체계적 재해복구실현
도시계획과의 관계	지구레벨의 방재관련계획

2.2 방재시범마을 조성 현황 검토

방재마을의 개념은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부터 근간이 되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로 구분된다.

삼척시와 금산의 경우는 침수위험지구에 속하며 장흥군의 경우는 유실 위험지구에 속하고, 이는 모두 풍수해에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지정되었다.

2008년 8월 이를 전면적으로 관리하고자 소방방재청에서 삼척시 정라지구, 금산군 후곶지구, 장흥 원등지구를 방재마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재해발생의 특성 및 주요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관과 주민이 종합적으로 계획운영 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다. 현재 3곳 모두 실시설계가 완성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각종 운영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노력을 실시 중에 있다.

3 일본의 방재마을 조성사례 검토

일본 방재마을 만들기 조성은 법률적, 행정적, 조직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률적 측면은 일반적 법률과 방재목적의 법률로 구분할 수 있다.

일본 지구레벨의 방재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은 구(區)단위의 마을만들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와 도로정비를 통하여 쾌적성 향상과 함께 방재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 정비사업 관련 조례 등이 시행되고 있다.

지구레벨의 방재마을 만들기와 관련해 방재를 주목적으로하는 법률에는 「구진재부흥대책 및 진재부흥사업의 추진에 관한 조례」, 「구피재시가지부흥정비조례」 등이 있으며 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방재력 향상에 기여한다. 행정계획적 측면의 방재마을 만들기도 일반적인 행정계획과 방재목적의 행정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방재마을 만들기 행정계획은 크게 일반적인 도시계획 속에서 방재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과 방재관련 도시계획적 사항만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구레벨의 방재마을 만들기와 관련해 방재목적의 방재마을 만들기 행정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계획은 법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과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수립되는 임의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 방재마을의 운영은 각 지역별 발생빈도가 높거나 위험 인자가 높은 재해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방재계획 수립 시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이를 관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또한 사업참여의 지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각종 홍보, 교육의 콘텐츠를 활용하며 주민주도형 사업의 일환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4. 방재마을 활성화 방안 제시

4.1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확대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의 핵심은 지역방재력 향상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방재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주민주도형 사업계획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기관 위주보다는 지역주민위주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행정은 주민들의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조·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4.2 방재마을 만들기 조례제정

주민참여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가칭) 방재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재난관리활동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을 쾌적하고, 특색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제정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등의 예와 같이 주민이 자발적이고 자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추진의 기반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4.3 지역방재 거버넌스체계의 활성화

지방정부, 지역주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방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방재전문가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역방재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재해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방재안전도시 추진협의회 구성시 지역주민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관주도의 협의회 운영보다는 지역주민·시민단체 주도로 방재안전도시 추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방재마을의 개념을 검토하고 시범사업 운영현황을 알아보았다. 또한 일본의 방재마을 구축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활성화방을 도출하였다. 방재마을은 지구단위의 방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주체가 주민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범사업 중인 3개소의 경우 구조적시설의 구축은 되어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주민참여방안에 대하여 개발할 단계이다. 이에 선진 사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조적 운영방안과 함께 주민추진체계를 중심으로 한 방재마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방재마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은 2010년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소방방재청(2010), 방재마을 구축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